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35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25일 (음력 12월 9일) 목요일

“설 민심 잡아라” 불 붙는 광주시장 선거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심 향배를 좌우할 설 연휴가 3주일 앞으로 바짝 다가오면서 광주시장 선거전에도 불이 붙고 있다. 24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윤창현 광주시장 후보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재선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책제목을 ‘광주형 일자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고 정해 ‘광주형 일자리 코리아’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주최측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국내·외 인사 8000여 명을 초대했다”고 밝혔다. 핵심 정무리안인 송태종 정무특보와 김

1월말~2월초 출판기념회·출마선언 잇따라 당원 명부 유출 검-경-선관위 조사 변수될 듯

영광 비서관도 이르면 다음주 중으로 사퇴할 예정이고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에 흠어져 있는 정무자들도 세를 규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는 이용섭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2월 초 공식

사퇴와 함께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계와 기업인, 시민사회단체, 지지도인 등을 중심으로 캠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설 연휴를 보름여 앞둔 오는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

목적홀에서 ‘꿈 넘어 꿈을 향해, 날자 향자 출판기념회를 열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선 양 최고위원이 정계에 발을 내딛는데 디딤돌 역할을 한 최재성 민주당 정당발전위원장과 양 최고위원이 토론회를 갖고 표창원 의원 등 정당 인사와 지지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30일에는 정의당 광주시장 나경채 대변인이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민주당에서도 광주시장 후보를 내기로 하고 내부적으로는 추대 인물을 내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탈당 경력자 20% 감산 예의 규정 집안싸움도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 광주지역 위원장 8명 가운데 양향자·강기정·박해자·이용빈 위원장 등 4명은 전남 조찬모임을 갖고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수는 문제지만 유출된 것이나 다름 없어도 당 차원의 조치가 소극적인 것 아니냐.” “경선 불복 탈당자 20% 감산 배제 움직임은 누가 봐도 이 부위원장을 위한 예외 규정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민 구정장은 이 부위원장에 공개질의를 쏟아내며 대립각을 세웠다.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국민의당에서는 통합과 중심의 통합신당 반대와 중심의 개혁신당 축이 당내 갈등이 마무러되는 시점에 각자 후보를 낼 지가 관심사다.

희미한 윤곽만 드러나고 있는 민주당 주자들 간의 합종연횡이나 정책연대 여부도 경선 선거판에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당원 명부 유출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수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질 지도 주요 변수 중 하나다.

주춘성 기자



한 겨울에 딸기 수확 광주 북구의 대표 지역 특산품인 ‘오매 지산딸기(금실 품종)’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24일 오전 북구 건국동 지산딸기재배하우스에서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AI여파’ 전남 오리사육량 ‘반토막’...소강상태속 보상금 56억

올겨울 들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전남 오리 사육량이 반토막 났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전남도내 오리 사육량은 16개 시·군 166농가에서 245만5000마리로 집계됐다.

올겨울 들어 AI가 첫 발생한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313농가 479만3000마리와 비

교하면 233만8000마리(51%)가 감소했다 40여일만이다.

이는 AI 발생 농가에 따른 살처분과 방역대 입식금지, 발생 위험지역 입식 제한 등에 따른 것이다.

이날 현재 오리 살처분 규모는 5개 시·군, 40농가에 81만2000마리로 살처분 보상금은 56억원에 이른다.

또 전남도가 AI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입식 제한 유도에 84개 농가가 휴지기에 참여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 농가 및 주변 500m 이내 농가다.

오리사육농장의 신규 입식 신고도 전남도의 점검과 확인 과정을 여러 번 거치는 등 처리 절차를 3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

했고 무허가 축사의 사육도 금지시켰다.

한편 올겨울 들어 전남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던 AI가 지난 10일 장흥 육용오리와 강진 씨오리의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 이후 추가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다.

13일째 발생하지 않으면서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가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14건 가운데 11건이 전남에서 발생했다. 시군별로는 영암에서 4건이 발생했고 나주·고흥·강진 각 2건, 정흥 1건 등이다.

김정환 기자



이상한 읍소?

인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2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하며 별도 개혁신당 창당을 선언한 반통합파를 향해 “별도로 창당을 할 거라면 국민의당을 나가서 해야 할 일”이라며 “당규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반통합파는 제명을 가까이 받아들이겠다며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출당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당 통합 찬·반파 간 감정싸움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안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서 내일 오후 6시 창당의 뜻을 밝혔는데 어찌구무는 알 이라고 비판했다. 반통합파인 박지원은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약 반통합파 의원들의 행동을” 해당 행위로 본다면 오늘 당장 제명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영광스럽겠다”고 꼬집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자료사진=뉴시스



하나된 열정 하나된 대한민국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 강원도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언론진흥재단

2018 평창의 해가 밝았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을 지원합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2018. 2. 9 - 2. 25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2018. 3. 9 - 3. 18

올림픽 특별 콜센터 1330 |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검색